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손석호 (주)바리엔유 대표

“아날로그 감성 자극 친근감으로 승부”

연매출 200억원 온라인 의류 쇼핑몰 성공기도
문화도시 성공 기원 광주에 카페·갤러리 열어



시도했다”며 “늘씬한 모델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신체조건을 가진 모델을 보여 고객들이 ‘저 모델이 입는다면 나도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망고 남성복 쇼핑몰을 열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손 대표는 “사장은 그 분야를 잘 알아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단순히 패기와 열정만으로 쇼핑몰에 뛰어든다면 백전백패”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쇼핑몰 ‘바가지 머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 길에 ‘바가지 머리’ 오프라인 매장과 ‘카페 바리에’를 연데 이어 지난해 7월 광주 불로동에 ‘카페 바리에’와 갤러리 ‘바리에 아트’를 오픈했다. 손 대표는 “문화도시 광주가 서울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광주에도 카페와 갤러리를 열었다”며 “수익금의 일부는 고향인 광주에 쓰기 위해 사회공헌활동도 다양하게 펼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3월 물가 광주 2.4%↑ 전남 2.3%↑

32개월만에 최저치...채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면서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과 지난해 3월 4%대로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2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2010년=100)로 전월에 비해 0.2%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2009년 7월 1.3%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 같은 달 대비 1.9%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7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토마토(27.2%), 굴(25.3%) 등 주로 신선식품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3월 전년 동월대비 19.1%나 급증한 데 이어 올 3월에도 7.9%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식탁물가 상승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시설이용료(-26.9%), 학교급식비(-15.5%), 유치원 납입금(-13.7%) 등이 크게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

수를 낮췄다. 1년 전에 비해 농축수산물물은 3.2%, 공업제품은 4.0%, 서비스는 1.9%, 신선식품지수는 7.9% 각각 상승했다. 전남지역도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6.3(2010년=100)으로 전월에 비해 0.2% 하락, 전년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2009년 7월 1.5% 이후 가장 낮았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농축수산물물은 2.8%, 공업제품은 4.7%, 서비스는 0.3%, 신선식품지수는 1.9% 각각 상승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집안 미니텃밭 만들어요” 대한항공이 식목일을 앞두고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 앞에서 객실 승무원이 어린이 및 시민들에게 채소 재배 키트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4월 5일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2개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국내선승 이용객을 대상으로 채소 재배 키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재정 건전성 지속...‘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무관세 수입물량 7만서 2만으로 감축 정부-양돈협회 합의...돼지고기 출하 중지 철회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장점인 재정·대외 건전성이 계속되고, 대북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AA레벨 진입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후에 높아진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인 A1(positive) 바로 한 단계 위는 Aa3로 사우디, 중국, 일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높인 이유로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등을 제시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응해 국가채무 규모가 안정적이며 재

정건전하다고 밝혔다. 대외건전성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낮은 물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감소하는 등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이행했지만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등급 전망 상향에 도움이 됐다. 무디스는 2010년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전 수준인 ‘A1’ 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피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1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가 2009년 9월 ‘안정적’으로 환원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005년 이후 현행 등급(A)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양돈 농가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에 반발해 2일 시작하기로 한 돼지고기 출하 중지 방침을 철회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가 전남 마라톤협상에서 삼겹살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합의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일 밤

농식품부와 협상을 벌여 당초 7만여톤에 반발해 2일 시작하기로 한 돼지고기 출하 중지 방침을 철회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가 전남 마라톤협상에서 삼겹살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합의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일 밤 돼지고기 값이 생선비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고자 민간의 자율적인 비축 지원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양돈협회와 정부가 상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2일 시작하기로 했던 전국 회원 농가의 돼지 출하 중단과 6일 총궐기 대회를 철회했다. 이병모 양돈협회 회장은 “국산 돼지고기 ‘환돈’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 한돈 농가들은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29.29 (+15.25)
▲ 코스닥지수	521.80 (+2.24)
▼ 금리 (국고채 3년)	3.55% (-0.02)
▼ 원·달러 환율	1,127.90원 (+5.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무역 2조달러 최대 걸림돌은 저출산·고령화”

코트라 국민인식도 조사
한국이 지난해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국민들은 앞으로 2조 달러 시대를 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5~7월 1000명에게 ‘무역 1조달러 달성 국민인식도’를 조사

한 결과 2조달러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제약으로 저출산과 노동력 고령화(24.5%)가 꼽혔다고 2일 밝혔다. 이어 빈부격차(23%)와 높은 대기업 의존도(22.5%)가 바짝 뒤를 쫓았으며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15%)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20%), 양극화 해소(11.4%), 삶의 질 향상(11.2%), 복지 향상(9.7%) 등이 차례로 순위권에 올랐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 주도적 사업으로는 반도체나 휴대전화 등 IT(정보기술) 산업(40.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연합뉴스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 물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부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빠지고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특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열반향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한 일 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입사원모집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지, 면티, 면안락 착용 후 휘림토 중점몰을 종이컵 한컵과 따뜻한 물 한컵을 혼합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 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 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재운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끈적거림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면,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용분사 | 임상적 지용 | 25,000원
복지는마를 | 15,000원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참옷 골드

울담발

가족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안도 맹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울담발을 맹산 울담발 진액, 그 원료가 됩니다.
게르마늄 광천수로 유명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이대째 울담발을 다룬 사람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 옷에도 공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마다 사람이 지하 186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숭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 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